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

주학, 변은희, 김성봉*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ediating Effect of Self-Determination-

Zhou He, Eun Hee Byeon, Sung-Bong Ki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 대인관계, 자기결정성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과에 대한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리서치 전문 기관인 M사의 조사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자료는 SPSS 28.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태도, 대인관계, 자기결정성은 서로 양적상 관관계가 나왔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대인관계, 자기결정성이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부모양육태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결과가 나왔고, 대인관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고, 또한 성별에 따라 자기결정성이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셋째,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간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성은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paper sought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adolescents,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etermination on parenting attitude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 survey of 300 teenagers was conducted using the research infrastructure of Company M, an online research institution.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8.0, an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quantitative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attitude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elf-determination. Second, a T-test was conducted to find out wheth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ing attitude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self-determination perceived by adolescents according to gender. Third, it was found that self-determination ha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adolescents.

Keywords : Parenting-Attitudes, Self-Determination, Interpersonal-Relationships, Determination, Attitudes

*Corresponding Author : Sung-Bong Kim(Jeju National Univ.)

email: edutopia@jejunu.ac.kr

Received November 27, 2023

Accepted March 8, 2024

Revised January 15, 2024

Published March 31, 2024

1. 서론

1.1 이론적 배경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회와 접촉하며 기본적인 행동양식을 습득하는 장소는 가정이다. 가정은 청소년들의 지적 및 도덕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적절한 행동, 가치관, 지식을 습득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된다[1].

가정은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장소로,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지적 및 정서적 발달에 주요한 결정 요소로 작용한다[2].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형성되는 인간관계의 중심이며, 이 관계는 자녀의 신체, 인지, 정서, 사회 등의 종합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아동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3].

하지만 청소년 시기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로서, 가족 중심의 관계에서 벗어나 친구, 선·후배, 교사 등 다양한 관계가 확장되면서 부모의 교육적 기대로 인해 스트레스와 긴장이 증가하는 시기이다[4]. 따라서 청소년 시기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며, 부모양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전반적이고 긍정적인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5]. 자녀를 낳는 순간부터 부모는 예비 부모에서 실제 부모로 탈바꿈합니다. 자녀 양육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대부분 부모 역할이 후천적으로 배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6].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7]에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채택한 부모일수록 자녀인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더불어 [8]의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정서지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정서지능도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9]의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비행과 부적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비행과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부모와의 대화가 양육태도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이는 자아의 자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모-자녀 관계는 기본적으로 영구적인 관계로 간주하며, [10]의 관점에서는 부모가 청소년에게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작용하면서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조력관계로 해석되고 있다. [11]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대화가 많이 나누는 청소년들은 행복감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부모와의 대화 빈도가 행복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020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머니와 주중에 매일 30분 이상 대화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76.2%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버지와 주중에 매일 30분 이상 대화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40.6%로 조사되었다. 어머니와의 대화 빈도는 2017년(72.9%)보다 상승하였으나, 아버지와의 대화 빈도는 2011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011년 45.6%, 2014년 54.2%, 2017년 41.1%). 이러한 추이는 부모-자녀 간의 소통 패턴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대화 빈도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인간은 부모와의 만남을 통해 초기에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심리적 특성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12].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에서 지속해서 긍정적인 경험이 존재해야 하며, 자유롭고 동시에 책임감 있게 삶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양육태도는 청소년이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에게 자신감을 부여하며,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자립심을 키우며,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데 기여한다[13]. 또한,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는 능력도 함께 발전하게 된다.

[14]는 또한 부모-청소년 관계가 인간의 성장, 발달, 성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자 작용 요인이라고 언급하며, 이 관계를 가장 전면적이고 영구적인 인간관계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청소년 관계 속에서 부모는 청소년의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분화와 통합 과정에 관여하여 청소년이 사회와의 접촉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로 청소년들의 삶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많았다. 학교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비율은 48.4%로 나타났고, 긍정적인 비율은 11.4%에 그쳤다. 사회에 대한 신뢰도도 부정적인 비율이 43.7%로 증가하고, 긍정적 비율은 8.3%로 감소했다. 그러나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비율이 22.1%로 높아지고, 부정적 비율은 9.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타인들과의 다양한 관계로 정의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대인관계는 일반 성인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주로 또래관계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또래관계를 통해 바람직한 대인관계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인격형성과 정서발달에 매우 중요하다[15].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많은 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16-21]. 이를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그 영향력을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그들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 자신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사회적 기능과 태도를 습득하며, 타인의 지지를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 더 잘 대응하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22].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청소년을 어떻게 양육하는가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 달라진다는 연구들은 오히려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인관계를 어떻게 맺고 유지할 것인가의 핵심인 대인관계 능력은 사회적 능력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기 때문이다[23].

부모가 청소년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처음부터 습관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청소년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게 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즉 내부의 힘이 생기고 자기결정성이 발현된다[24].

자기결정성은 [25]에서 제안한 자기결정성이론의 개념으로, 자기 행동과 운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26]는 내적으로 동기화된 상태, 즉 어떤 목표 그 자체를 위해 물질적 보상이나 외적인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며 최적의 심리상태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 중 부모양육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이 자기결정성을 형성하는데 부모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27]. [28]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결정성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영향을 받으며, 부모와 청소년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자기결정성 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29]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적게 지각할수록 자기결정성이 높아지며, 모의 양육행동 중 조건부 관심과 자율성 지지가 청소년의 자기결정성을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

다. 부모-청소년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 중 자율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30].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에 의하여 청소년의 성격, 자아존중감, 자신의 대한 통제지, 자신의 대한 신뢰감, 환경에 대한 통제능력 등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개인적 특성에 의하여 청소년의 행동 양식이 결정된다는 점 등이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삶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31]. 이러한 다양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의 자기결정성 형성에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지만,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결정성 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과정에서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모양육태도, 대인관계, 자기결정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여,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주요 변인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대인관계, 자기결정성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부모양육태도,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부모양육태도와 진로정체감 간의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 대인관계, 자기결정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개념 간 인과적 관계를 토대로 하여, 부모양육태도와 자기결정성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고, 부모양육태도 및 대인관계에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종속변수인 대인관계에 대해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자기결정성을 매개변수로 하여, 이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각각 종속변수인 대인관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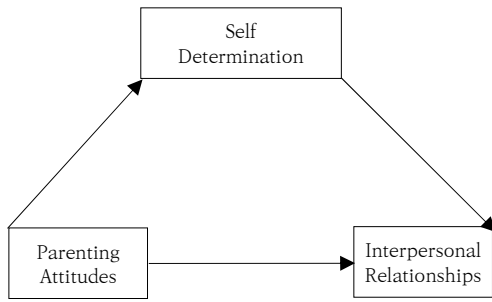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1.3 용어의 정의

1.3.1 부모양육태도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부모를 대신 한 다른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타내는 보편적인 태도 및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부모의 수용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협동심과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학교생활 및 친구 관계에서도 잘 지내며 독립성과 자발성을 가지는 데 도움을 준다[32].

[33]는 부모양육태도를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자녀의 품행 및 성격의 형성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인지발달과 정서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34]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모든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1.3.2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1920년대에 Yale대학에 인간관계연구소가 설치되면서 인간관계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부터 이 개념이 증시되었다[35].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란 말 그대로 사람을 대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여러 학자가 대인관계에 대해 정의했지만, 학자들의 강조점을 종합적으로 결론 내리자면 인지, 정서, 행동, 심리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일련의 견해들을 바탕으로 대인관계의 개념을 정의하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빈번한 대화와 만남의 교류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연계라고 할 수 있다[36].

그 후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연구되다가 1950년대 이후 심리학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대인관계 개념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37]. 대인관계는 한 사람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이루는 사회

적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청소년에게 있어 대인관계는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대상인 부모, 교사, 친구와의 관계를 말한다[38].

1.3.3 자기결정성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주체 내부에 있는 것으로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39]. 또한 자기결정성이란 인간은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만족하면 개인 스스로 성취에 대한 욕구가 발휘되어 긍정적 행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주관적 안녕감이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40].

2. 선행연구 고찰

2.1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부모양육태도는 또래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41]. 마찬가지로[42]의 연구는 친구 관계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 중 친밀, 헌신, 존경이 높을수록 친구신뢰, 교제지속, 친구적응, 공동생활이 높아지지만 엄격할수록 친구신뢰, 교제지속, 친구적응, 공동생활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양육태도는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43].

2.2 부모양육태도와 자기결정성의 관계

부모-자녀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기결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44]의 논문에서 밝혔다.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기결정성과는 정적 상관을 거부적 양육태도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45]. 부모양육태도와 자기결정성(.269) 상관관계도 유의하게 나왔다[46]. 가족탄력성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r = .000$ 으로 유의확률 $\alpha = .01$ 하에서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탄력성이 자기결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 나타났다[47]. [48]의 연구 결과는 부모는 아동이 성장 발달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주고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및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변인으로서 부모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부모 공감을 인지한 청소년일수록 자기결정성을 형성하는 과정인 내면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49].

2.3 자기결정성과 대인관계의 관계

[50]는 청소년의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의 충족 경험은 긍정적인 적응을 위한 행동을 끌어내고, 학교 내에서 교사와 교우관계에 원만한 적응을 이루어 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자기결정성의 하위요 인인 유능성과 청소년의 학교생활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 전체($r=.630$),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교우관계($r=.589$), 또한 교사-학생 관계($r=.509$)와 유의미한 상관관이 있었다[51].

2.4 부모양육태도, 대인관계, 자기결정성의 관계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은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역량(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관계를 병렬 삼중매개 하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52]. 또한 [53]의 결과는 부모의 애정적 태도가 자녀의 자기결정성 동기를 향상함으로써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또한 [54]의 논문은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대인능력 간의 관계를 자기결정성이 매개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리서치 전문 기관인 M사의 조사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된 설문지는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00명의 자료(남학생 150명, 여학생 150명)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국내 최대 온라인 리서치 기관인 M사에서 이루어졌으며, 현재 온라인 조사패널 1.713.175명과 모바일 조사패널 1.377.172명(2023년 11월 기준)을 확보하고 있다.

3.2 측정 도구

3.2.1 대인관계 척도

[55]가 변안한 [56]의 관계성 변화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를 [57]가 요인분석을 통해 4요인 23문항으로 구성하고, 질문의 응답범주는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으로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58]가 용어 수정한 척도로 재구성한 [59]의 척도를 사용했다. 각 요인에서 점수가 높으면 대인관계

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6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인관계를 측정하는 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로 Cronbach's α 값이 .92로 나타났다.

3.2.2 부모양육태도 척도

[61]에서는 부모양육태도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62]이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총 21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고, 질문의 응답범주는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으로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에서 점수가 높으면 부모양육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6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는 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로 Cronbach's α 값이 .69로 나타났다.

3.2.3 자기결정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64]의 개인의 자기결정성을 측정하는 기본심리욕구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 Scale: BPNS)의 문항에 근거하여 [65]가 한국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게 개발 및 타당화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의 응답범주는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으로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에서 점수가 높으면 자기결정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6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결정성을 측정하는 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로 Cronbach's α 값이 .75로 나타났다.

Table 1. Constructing items on the scale and coefficients of confidence (N=300)

Measure	Question number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Interpersonal Relationship	1.2.3.4.5.6.7.8	23	.92
	.9.10*.11.12.1		
	3.14.15.16.17.		
	18.19.20.21.2		
2.23			
Parenting Attitudes	1.2.3.4.5.6.7.8	21	.69
	.9.10.11.12.13		
	.14.15.16.17.1		
	8.19.20.21		
Self Determination	1*.2*.3*.4.5.6*	18	.75
	.7.8.9.10.11.1		
	2.13.14*.15.16		
	.17.18		

*는 역채점 문항

4. 연구 결과

4.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인관계는 평균이 2.84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14.54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는 평균이 1.57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8.85로 나타났다. 자기결정성은 평균이 1.06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8.91로 나타났다.

첨도의 절댓값을 분석한 결과, 왜도 -.04~.33, 첨도 -.07~.143의 범위를 보였다. 이는 [67]이 제시한 왜도 절댓값 3미만, 첨도 절댓값 8미만의 정규 분포기준을 충족하므로 모든 변인에서 정규성 가정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2. Reliability verification for measurement variables. (N=300)

Variable	Mean	Std.Deviation	Skewness	Kurtosis
Interpersonal Relationship	2.84	14.54	-.04	-.07
Parenting Attitudes	1.57	8.85	-.22	1.10
Self Determination	1.06	8.91	.33	1.43

*p<.05, **p<.01, ***p<.001

4.2 성별에 따른 변수 평균 차이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 부모양육태도, 자기결정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대인관계 결과를 살펴보면, $t=3.21$, $p<.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남자는 평균 83.84점, 여자는 78.52점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대인관계에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부모양육태도 결과를 살펴보면, $t=1.88$, $p>.05$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성별에 따라 부모양육태도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자기결정성 결과를 살펴보면, $t=2.50$, $p<.05$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자기결정성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남자는 평균 62.10점, 여자는 59.54점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자기결정성에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Table 3. Differences in variable unevenness by gender (N=300)

Variable	Gender	Mean	Std. Deviation	t(p)
Interpersonal Relationship	Boy	83.84	14.21	3.21***
	Girl	78.52	14.42	
Parenting Attitudes	Boy	67.58	9.86	1.88
	Girl	65.63	7.61	
Self Determination	Boy	62.10	8.60	2.50*
	Girl	59.54	9.06	

*p<.05, **p<.01, ***p<.001

4.3 측정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 대인관계, 자기결정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인관계와 부모양육태도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양적 상관($r=0.240$, $p<0.01$)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대인관계와 자기결정성 간의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양적($r=0.693$, $p<0.01$)이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와 자기결정성 간의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적상관($r=0.407$, $p<0.01$)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부모양육태도, 자기결정성, 대인관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easurement variables (N=300)

Variable	1	2	3
Interpersonal Relationship	1		
Parenting Attitudes	.240**	1	
Self Determination	.693**	.407**	1

* p<.05, ** p<.01, *** p<.001

4.4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18.207$, $p<0.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54.5%로 나타났다($R^2=0.545$).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은 1.918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에 유의한 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beta=0.240, p<0.001$). 즉, 부모양육태도가 증가할수록 대인관계도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에 부모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대인관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Table 5.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s on Interpersona Relationship (N=300)

model	Unstandardize 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s	t(p)	R ²	F(p)
	B	SE	β			
Interpersonal Relationship	54.913	6.210		8.842***	.545	18.207***
Parenting Attitudes	.394	.092	.240	4.267***		
D-W=1.918						

* p<.05, ** p<.01, *** p<.001

4.5 자기결정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는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275.434,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47.9%로 나타났다($R^2=0.479$).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은 2.160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자기결정성이 대인관계에 유의한 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beta=0.693, p<.001$). 즉, 자기결정성이 증가할수록 대인관계도 증가하는 것

로 해석된다.

이로써,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에 자기결정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대인관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4.6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간 관계에서 자기결정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모양육태도가 종속변인인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부모양육태도는 대인관계를 약 54.5% 설명하며,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beta=.240, p<.001$).

2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자기결정성이 종속변인인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자기결정성은 대인관계를 약 47.9% 설명하며,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beta=.693, p<.001$).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부모양육태도와 매개변인인 자기결정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자기결정성을 통제 후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P=0.268$), 결과적으로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사이의 관련성 평가에서 자기결정성이 완전매개를 한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변수의 구조적 관계를 가정하고 검증하여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간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성의 매개 효과를

Table 6. The Effect of Self-estee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N=300)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s	t(p)	R ²	F(p)
	B	SE	β			
Interpersonal Relationship	12.404	4.188		2.962***		
Self Determination	1.131	.068	.693	16.596***	.479	275.434***
D-W=2.160						

* p<.05, ** p<.01, *** p<.001

Table 7.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effect of peer attachment on school life adaptation

(N=300)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R2	F(p)
	B	SE	β				
Parenting Attitudes (Interpersonal Relationship)	.394	.092	.240	4.267	.000	.545	18.207***
Self Determin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1.131	.068	.693	16.596	.000	.479	275.434***
Parenting Attitudes (Interpersonal Relationship)	-.083	.0075	-.051	-1.111	.268		
Self Determin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1.165	.075	.714	15.615	.000	.479	138.442***

D-W=2.159

* p<.05, ** p<.01, *** p<.001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대한 이론적 및 실제적 측면에서 유용한 통찰과 의미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연구 모델의 핵심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그리고 자기결정성과 대인관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더불어,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간에 자기결정성이 어떻게 매개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한 확인도 가능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와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대인관계, 자기결정성의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각 변인들 간에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간의 관계에서 정적인 상관을 보였던 연구들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68, 69). 또한 [70]의 연구는 부모양육태도 중 애정과 구조제공은 청소년의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또래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고 부모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청소년의 대인관계 수준이 높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71]의 연구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87, p < .001, t = 15.147$).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99, p < .01, t = -2.748$). [72]의 연구도 부모양육태도와 자기결정성 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인관계와 자기결정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 결과는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자기결정성이 강한 경향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연구와 일치한

다. [73]의 연구는 자기결정성($r = .59, p < .001$), 대인관계($r = .56, p < .001$)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는 대인관계 및 자기결정성의 향상과 관련이 있으며,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결정성은 부모와 대인관계가 청소년의 성격 및 사회적 능력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한다. 더불어, 자기결정성은 대인관계의 품질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는 청소년의 자아발전과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대인관계와 자기결정성 간에도 밀접한 상호작용이 있어, 대인관계의 품질이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환경과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모 및 교육기관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의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자아발전과 자기결정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간 관계에서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기결정성은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74]의 연구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청소년 대인관계 문제에서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인 자기수용이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75]부모의 양육태도 또한 자기결정성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자녀의 대인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를 나오는 연구는 [76]의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직접적으로 대인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결정성 변인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종합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인관계가 청소년의 자기결

정성을 매개로 하여 대인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상호작용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부모와 청소년 간의 상호작용이 청소년의 자기결정과 대인 능력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과 제언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 대인관계, 자기결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 보고식 설문 방법을 채택했다. 자기 보고식 설문은 개인의 주관성에 의해 결과가 도출되므로 연구대상자의 실제 상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바람직성에 영향을 받아 편향되거나 왜곡된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 혹은 행동 관찰이 함께 진행되어 분석 결과를 보다 객관화할 수 있는 연구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이 대인관계를 더 잘 영위해갈 수 있음을 논의한 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원을 포함한 대인관계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이러한 심리치료 개입의 실제 효과를 검증하는 질적, 양적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대인관계, 자기결정성의 관계에 대하여 밝히고, 부모중심이 아닌 청소년의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얘기하였으나 이러한 연구결과를 뒷받침할 국내의 선행연구 결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모양육태도, 대인관계, 자기결정성의 관계에서 청소년 중심의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구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1] M. S. Moon, *Effects of parents'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adolescents on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academic performance*, Master's thesis, Sunche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p.1, 2007.

[2] H. J. Yang, "The form of adolescents' anger based on the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their children", *Social science anthology*, Vol.24, No.1, pp.157-177, Feb. 2005.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8a636d4ba6f15e2dffe0bdc3ef48d419

[3] M. Y. Yim, H. J. Moon, "Effects of Child's perceived happiness and Daily Stres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Focusing on Students in Fifth and Six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18, No.2, pp.255-275,

May. 2011.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04fff0a4c2c4ea5f4884a65323211ff0

[4] J. K.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empathy perceived by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elf-determination learning motivation*,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p.4, 2017.

[5] J. S. Choi, N. N. Choi, "An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 Trends on Parental Education Programs Using Picture Books", *Children's Literature Education Research*, Vol.23, No.3, pp.49-83, Sep. 2022.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142579&language=ko_KR&hasTopBanner=true

[6] I. S. Choi, "The Effect of Preliminary Parental Education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on the Change of Marriage and Child-rearing Perspectives", *Multimedia Paper on Art, Humanities and Social Convergence*, Vol.9, No.1, pp.795-804, Jan. 2019.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50027023944>

[7] M. S. Yang,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on Smartphone Addictio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Jeju National University, p.43, 2021.

[8] M. S. Kang, *Mediating Effect of Empathy 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Emotional Intelligence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Jeju National University, p.56, 2018.

[9] Y. H. Ko,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adolescents on delinquency: mediating effect of self-resilienc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Jeju National University, p.36, 2017.

[10] C. R. Rogers, *Client-centered therapy: Its current practice, implications and theory*, p.560, Boston: Houghton Mifflin, 1951, pp.560.
<https://www.amazon.com/Client-centered-practice-implications-Houghton-psychological/dp/B0006ASP12>

[11] Y. E. Mun, J. Y. Lee,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s and Conversation Hours Between Parent and Child on Children's Happiness",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Vol.17, No.1, pp.85-104, Feb. 2021.
<https://scienceon.kisti.re.kr/commons/util/originalView.do?cn=JAKO202110650792552&oCn=JAKO202110650792552&dbt=JAKO&iournal=NJOU00417291>

[12] M. S. Moon, *Effects of parents'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adolescents on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academic performance*, Master's thesis, Sunche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p. 35, 2007.

[13] J. K.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empathy*

- perceived by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elf-determination learning motivation*,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p.55, 2017.
- [14] J. E. Kim, *Psychology of the Korean family*, p.291,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1974, pp.55.
- [15] B. S. Oh, Y. S. Won, S. R. Ham, "Effect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7, No.6, pp.106-115, Jun. 2017.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171955499577_3.page
- [16] S. H. Kim, *The effect of parents'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children's friendship: Mediating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Master's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pp.42, 2015.
- [17] M. S. Moon, *Effects of parents'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adolescents on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academic performance*, Master's thesis, Sunche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p.435, 2007.
- [18] E. H. Park,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influence of parents' parenting attitudes on children's interpersonal problems*,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p.55, 2015.
- [19] H. S. Seo, *The effect of father's parenting attitude on the self-esteem, interpersonal skills, and resilience of late adolescent children*, Ph.D dissertation, Seoul Venture University, pp.71, 2013.
- [20] B. S. Oh, Y. S. Won, S. R. Ham, "Effect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7, No.6, pp.106-115, Jun. 2017.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171955499577_3.page
- [21] I. G. Oh, J. S. Baik,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Dys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nd Interpersonal Problems among Adolescents", *Korean Society of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Vol.16, No.1, pp.79-88, Feb. 2018.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969955>
- [22] S. M. Seo,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ocial anxiety of adolescents*,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pp.75, 2020.
- [23] Y. J. Kim, "Mediating Effect of Self-determination Theor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al Affective Rearing and the Communication Competence in Adolescent: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Korean Society of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Vol.21, No.1, pp.1-26, Jan. 2014.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221083>
- [24] C. S. Rigby, E. L. Deci, B. C. Patrick, R. M. Ryan, "Beyond the intrinsic-extrinsic dichotomy: Self-determination in motivation and learning", *Motivation & Emotion*, Vol.16, No.3, pp.165-185, Sep. 1992.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BF00991650>
- [25] E. L. Deci, R. M. Ryan,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Y: Plenum, p.372, Springer, 1985, pp.355.
- [26] E. J. Kim, E. S. Kim, *The Effect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Self-determination Factors on Student Satisfaction of College Freshmen*,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ress and Public Relations, pp.35, 2007.
- [27] J. M. Shin, *The interrelationship among parental attitude, self-efficacy, and self-determination as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pp.105, 2016.
- [28] E. J. Kim,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on college freshman's life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1, No.3, pp.539-555, Sep. 2007.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2638614>
- [29] E. J. Kim,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self-determinationThe effect of phosphorus on the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with school lif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1, No.3, pp.539-555, Sep. 2007.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16530541
- [30] E. S. Park, D. W. Kim,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on Self-Regulated Learning: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etermination",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Vol.24, No.1, pp.35-50, Apr. 2021.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50028335417>
- [31] G. S. Song, "A Study on the correlations between Parent's Raising Attitude and Children's Personal Character", *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Management*, Vol.12, No.2, pp.1-14, Dec. 2014.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141776763063_9.pdf
- [32] D. S. Jeong, *The effect of mother-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children on school violence harm experienc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at Gachon University, pp.95, 2014.
- [33] B. K. Barber,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Vol.67, No.6, pp.3296-3319, Dec. 1996.
<https://www.istor.org/stable/1131780>
- [34] M. S. Moon, *Effects of parents'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adolescents on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academic performance*, Master's thesis, Sunche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p.1, 2007.

- [35] W. S. Kang, *The effect of group counseling to promote human relations on self-concep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at Jeju National University, pp.35, 1994.
- [36] M. S. Jeon,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Study of Youth Interpersonal Competency Program*,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Myongji University, pp.35, 2012.
- [37] Y. R. Cho, *The relationship between Oyoim personality traits and interpersonal tendencies and school adaptation*,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p.54, 2006.
- [38] B. S. Park, S. W. Bae,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academic achievement on the subjective well-being among school adolescents -Comparison of gender and school types", *A Study on Youth Welfare*, Vol.141, No.3, pp.1-26, pp.215-238, May. 2012.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001699207>
- [39] J. H. Kwak,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y-based group counseling programs on self-determin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p.68, 2016.
- [40] R. M. Ryan, E. L. Deci,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Vol.55, No.1, 749-761, Jan. 2000.
https://selfdeterminationtheory.org/SDT/documents/2000_RyanDeci_SDT.pdf
- [41] D. H. Kim, "Seria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Cooper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Attitudes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ldr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5, pp.485-495, May. 2020.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JAKO202015762903050&SITE=CLICK>
- [42] S. H. Kim, *The effect of parents'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children's friendship: Mediating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Master's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pp.42, 2015.
- [43] B. S. Oh, Y. S. Won, S. R. Ham, "Effect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7, No.6, pp.106-115, Jun. 2017.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1719554995773.page>
- [44] E. J. Kim,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on college freshman's life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1, No.3, pp.539-555, Sep. 2007 .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2638614>
- [45] H. I. Jo, J. E. Hwa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self-determined motivation for learning of middle school-aged childre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9, No.4, pp.27-52, Apr. 2012.
<https://lib.nypi.re.kr/search/detail/ARTLAZ00000039169>
- [46] S. Y. Kim, "The parallel triple mediating effect of self-determination, self-efficacy, and self-possi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arenting attitud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adolescents",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Vol.11, No.4, pp.43-64, Nov. 2021.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786852
- [47] J. S. Kim, *The effect of family resilience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on college life adaptation - mediating effect of self-determination*, Master's thesis, Gimche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Theology and Management, pp.15, 2018.
- [48] J. K.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empathy perceived by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elf-determination learning motivation*,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p.4, 2017.
- [49] S. H. Jeon, M. Shin, M. S. Yoo,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and Wellbeing in Youth", *Korean Youth Association*, Vol.18, No.1, pp.275-296, Jan. 201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001522714>
- [50] O. N Kim, *The effects of high school students' self-determin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 smartphone addiction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p.32, 2019.
- [51] O. N Kim, *The effects of high school students' self-determin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 smartphone addiction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p.45, 2019.
- [52] S. Y. Kim, "The Multi-Parallel Triple Mediation Effect of Self-Determination, Self-Efficacy, Self-Future Reli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 of Adolescents",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Vol.11, No.4, pp.43-64, Nov. 2021.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786852
- [53] Y. J. Kim, "Mediating Effect of Self-determination Theor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al Affective Rearing and the Communication Competence in Adolescent: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Korean Youth Association*, Vol.21, No.1,

- pp.1-26, Jan. 2014.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221083>
- [54] Y. J. Kim, "Analysi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the parental affective rearing and the communication competence mediating self determination theory", *Korean Youth Association*, Vol.20, No.2, pp.97-118, Feb. 2013.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133670>
- [55] S. M. Moon., "A Study on the Effect of Human Relations Training of University Students", *A collection of papers from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Vol.19, No.2, pp.195-204, Feb. 1980.
https://m.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7a9c7b74eae6b76&keyword#redirect
- [56] S. Schlein, B. Guerney, Relationship change scale, In *Relationship enhancement: skill-training program for therapy, problem prevention*, p.424, Proquest Csa Journal Division, 1997, pp.58.
- [57] Y. H. Park, *The effect of Korean parent-child relationship on interpersonal ability: focusing on father-child relationship, attachment, our consciousness, and self-differentia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at Catholic University, pp.36, 2006.
- [58] H. J. Park, *Effect of the communication skills enhancement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communication skill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chool well-being*,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Korea University pp.36, 2014.
- [59] C. K. Jeong, The effect of adolescents' self-regulation and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on school happines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aster's thesis, Goryeo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p.36, 2019.
- [60] B. Y. Cho, *The effect of adult attachment of out-of-home adolescents on interpersonal skills: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Jeju National University, pp.40, 2022.
- [61] J. A Seo, H. K. Cho,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III Data Analysis Report 4: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Adapted Youth to School, p.72,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2012, pp.55.
<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32466715810>
- [62] M. Y. Heo,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scale of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s*,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pp.55, 2000.
- [63] M. J. Kim,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s on career identity in high school students: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self-resilience and self-identit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pp.28, 2023.
- [64] R. M. Ryan, E. L. Deci,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Vol.55, No.1, 749-761, Jan. 2000.
https://selfdeterminationtheory.org/SDT/documents/2000_RyanDeci_SDT.pdf
- [65] S. H. Jeon, M. Sihm, M. S. Yoo,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and Wellbeing in Youth", *Sookmyung Women's University*, Vol.18, No.1, pp.275-296, Jan. 200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O01522714>
- [66] O. N. Kim, *The effects of high school students' self-determin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 smartphone addiction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p.32, 2019.
- [67] R.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ed.). p.534,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11, pp.354.
- [68] S. Y. An, H. S. Lee, "The Effects of Individual Psychology and Family Variables on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s",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Vol.21, No.3, pp.163-176, Sep. 2009.
<https://scienceon.kisti.re.kr/commons/util/originalView.do?cn=JAKO200934939599154&oCn=JAKO200934939599154&dbt=JAKO&journal=NJOU00291829>
- [69] J. E. Park, K. O. Seol, H. W. Jung,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ling and Adolescent Peer Relationships: Examining the Role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Gender",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29, No.3, pp.113-133, Sep. 201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O02144328>
- [70] Y. H. Lee, H. H. Shin, W. I. Lee, "The Effects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Korean Children's Welfare Studies*, Vol.72, No.2, pp.133-161, Jun. 2023.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442832&language=ko_KR&hasTopBanner=true
- [71] H. C Choi, W. Y. Eom,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Parenting Attitudes,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Regulated Learn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29, No.1, pp.91-113, Feb. 202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O02567757>
- [72] M. S. Kim, M. S. Song, "The Effect of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and Interpersonal Harmony on the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ol.20, No.11, pp.65-74, Nov. 2022.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0420>

- [73] E. H. Lee, Y. J. Yang,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Peer Attachment in Early Adolescents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in Convergence Era",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8. No.2, pp.37-44, Aug. 2018.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6736>
- [74] C. H.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acceptance*, Master's thesis, School of Peace and Security Counseling Psychology, Sangji University, pp.34, 2014.
- [75] Y. J. Kim, "Mediating Effect of Self-determination Theor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al Affective Rearing and the Communication Competence in Adolescent: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 study of adolescence*, Vol.21, No.1, pp.1-26, Jan. 2014.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221083>
- [76] Y. J. Kim, "Analysi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the parental affective rearing and the communication competence mediating self determination theory", *Korean Youth Association*, Vol.20, No.2, pp.97-118, Feb. 2013.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133670>

주 학(He Zhou)

[준회원]



- 2022년 8월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심리상담 석사)
- 2022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상담 박사 재학)

<관심분야>

청소년 상담, 마음챙김

변 은 희(Eun-Hee Byeon)

[정회원]



- 2018년 8월 :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임상치료대학원 심리상담치료학과 (심리상담치료학 석사)
- 2024년 2월 :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수료)

<관심분야>

정신건강, 심리적 외상

김 성 봉(Sung-Bong Kim)

[정회원]



- 1994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04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도박중독, 긍정심리학, 마음챙김